

## 영보이 국어 2017법원직 국어(①책형) 문제와 자세하고 신선한 영보이 해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와 함께 신선하고 자세한 해설 올려 드립니다. 해설만 읽어도 기본서를 읽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영보이 암기법이 있어 매우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보실 때 칼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에 색 깔이 칠해 있어 암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 영보이 저서 -

- ◆ 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판매 중 >
- ◆ 영보이 공무원 한자와 그의 친구들 < 판매 중 >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문3]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 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즈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비 내여 아즐가 비 내여 노훈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넬 비에 아즐가 넬 비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

(나)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던가  
이시라 후더면 가랴마는 제 구퇴야  
보내고 그리논 정(情)은 나도 몰라 후노라

- 황진이 -

【문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1)

- ① 감탄사를 활용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문 1】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1)**

(가)서경별곡(西京別曲): 고려 시대의 속요. 서경에서 임과 이별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남녀상열지사로 지목되어 산삭이 되기도 하였다. 그 원문은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나)황진이의 시조: 떠난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여자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① 감탄사를 활용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X) → (가)서경별곡의 경우 감탄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황진이의 시조에서는 감탄사가 나타난다.

◆ (나):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던가 < **아이**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

②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X) → (가)서경별곡의 경우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으나 (나)황진이의 시조의 경우에는 시어가 반복되지 않는다.

③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O)

◆ 두 작품에 의문사는 없으나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가)서경별곡(西京別曲)

◆ 구슬리 바회에 디신들 ~ 긴히썬 아즐가 긴히썬 **그츠리잇가**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

◆ 즘은 히를 아즐가 즘은 히를 외오곰 녀신들 ~ 신(信)잇둔 아즐가 신잇둔 **그츠리잇가** < 홀로 살아간들 사랑하는 임을 믿는 마음이 끊기고 **변하겠습니까?** >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 황진이의 시조

●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던가** < 아이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X) → 상징적인 소재는 (가)서경별곡에서만 나타난다.

◆ (가)서경별곡(西京別曲)

◆ 긴 < 끈이라는 의미로, 사랑하는 임과 연결하는 매개물을 이용하여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 대동강 < 임과 이별의 공간을 나타낸다. >

**★ 이별을 노래한 주요 작품 ★**

★ 井邑詞(정읍사): 백제 때의 가요. 행상을 나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가사가 전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이며,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악학궤범’에 실려 있다.

★ 고려 가요 ‘西京別曲(서경별곡)’

★ 고려 가요 ‘가시리’: 고려 시대의 속요. 이별의 정한(情恨)을 노래한 것으로, 전체 네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 귀호곡(歸乎曲) >

★ 황진이의 시조

★ 김소월의 ‘진달래꽃’: 김소월의 시집. 대표작 ‘진달래꽃’을 비롯하여 100여 편을 수록하였다. 1925년에 간행하였다.

**【문 1】 정답: ③**

【문 2】 (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만나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법원직 ①  
채형 문2)

< 보 기 >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  
 날러는 엇디 살라 흐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  
 잡스와 두어리마누논  
 선히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태평성대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

- 가시리 -

- ① (가): 임과 이별하기 보다는 임을 따라가서 사랑하고 싶어요.
- ② <보기>: 저는 임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실까봐 보내드리려고 해요.
- ③ (가): 그래서 저도 사공에게 떠나는 임을 잘 모셔줄 것을 부탁하네요.
- ④ <보기>: 슬프지만 임이 빨리 돌아오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문 2】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2)

◆ **가시리**: 고려 시대의 속요. 이별의 정한(情恨)을 노래한 것으로, 전체 네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 귀호곡(歸乎曲) >

① (가): 임과 이별하기 보다는 임을 따라가서 사랑하고 싶어요. (O)

◆ (가) ‘서경별곡’은 임과의 이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로 보아 **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② <보기>: 저는 임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실까봐 보내드리려고 해요. (O)

◆ ‘잡스와 두어리마누논 선히면 아니 올세라’로 보아 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임을 보내드리려 한다. < (임을) **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 봐 두렵습니다. >

③ (가): 그래서 저도 사공에게 떠나는 임을 잘 모셔줄 것을 부탁하네요. (X) → **사공이 배를 저어 임이 배를 타고 떠날까 봐 사공을 비난하고 있다.**

- ◆ 비 내여 아즐가 비 내여 노흔다 샤공아 <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 너의 아내가 음란한 줄도 모르면서 >  
 널 비에 아즐가 널 비에 연즌다 샤공아 < 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고즐여 < 대동강 건너편 꽃을 >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 배을 타면 (꽃을) 꺾겠습니다. >

④ <보기>: 슬프지만 임이 빨리 돌아오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0)

- ◆ 설은 님 보내옵노니 < 서러운 임을 보내옵니다. >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

【문 2】 정답: ③

【문 3】 (나)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2017법원직 ①책형 문3)

- ①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② 마음이 어린 후(後)이니 허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행여 귀가 허노라
- ③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흘러간든 청산(靑山)이야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져 우리 예어 가논고
- ④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一到滄海)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하니 수여 간들 엇더리

【문 3】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3)

◆ (나)황진이가 처한 상황은 **임과 이별한 후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①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 가을 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구나 >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 낙시 드리치니 고기는 아니 무는구나 >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 월산대군의 시조로 인간 세상의 물질적 욕구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  
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② 마음이 어린 후(後)이니 허는 일이 다 어리다 <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님 오리마는 < 구름이 많이 쌓인 산에 어느 누가 오겠냐마는 >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행여 귀가 허노라 < 떨어지는 나뭇잎 부는 바람에 행여 임인가 허노라 >  
● **서경덕의 시조로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혹시 임이 오지 않았나 하여 이별  
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③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 청산은 내 뜻이오 푸른 물은 님의 정  
이라. >  
녹수(綠水) 흘러간든 청산(靑山)이야 변(變)홀손가 <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소냐? >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져 우리 예어 가논고 <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흘러가  
는구나. >  
◆ 황진이의 시조로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④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 | 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 청산리 벽계수야 쉽게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

일도창해(一到滄海)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 한번 떠나가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하니 수여 간들 엇더리 < 밝은 달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

◆ 황진이(黃眞伊)의 시조로 인생의 덧없음과 작가의 낙관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문 3】 정답: ②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4~문5]

데 가는 데 각시 본 듯도 흥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이별(離別)하고

히 다 데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흥가마논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터야 어즈러이 흥똥디

반기시논 늦비치 네와 엇디 다루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기쁜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뉘라셔 뉘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뉘 네와 기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 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모습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 기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부라보라

출하리 뉘의 가 비길히나 보라 하니

부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논고

강천(江川)의 혼자 셔셔 디논 히를 구버보니

님 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흥더이고

모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야 풋짐{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7튼 열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슴 슬궤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짐{은 엇디 씨뚫던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죄리라

각시님 돌이야 궤니와 ㉢구존비나 되쇼서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문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4)

- ① ㉠: 상대방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을 대신해 입을 모시는 사람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탄식을 통해 화자의 허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문 4】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4)

◆ 정철의 '속미인곡(續美人曲)': 조선 선조 때에, 정철이 지은 가사. 작가가 참소를 받아 창평에 내려가 있으면서 지은 것으로, 임금을 천상에서 인연이 있었던 연인으로 설정하고 그 입을 잃고 사모하는 여인의 심정을 두 선녀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송강가사'에 실려 있다.

- ① ㉠: 상대방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O)  
 ◆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이별(離別)하고'에서 '천상(天上)'으로 보아 상대방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② ㉡: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O)  
 ◆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랴 < 내 몸의 지은 죄가 뉘같이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

③ ㉓: 자신을 대신해 입을 모시는 사람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X)  
 ◆ ㉓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뉘라서 뉘셨는고 < 가을과 겨울에 누가 (입을) 모셨는가? >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뉘 네와 궂티 세시는가 < 자릿조반과 아침·저녁의 진지는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가? >  
 기나긴 밤의 좁 {은 엇디 자시논고 < 기나긴 밤의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  
 ◆ 작품의 해석으로 보아 입을 대신해 입을 모시는 사람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입이 잘 지내시는지,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이 입을 잘 모시는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④ ㉔: 탄식을 통해 화자의 허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O)  
 ◆ ㉔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 아, 헛된 일이다, 이 입이 어디 갔는고? >  
 ◆ 해석으로 보아 탄식을 통해 화자의 허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문 4】 정답: ③

【문 5】 ㉗와 ㉔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5)

- ① ㉗와 ㉔는 입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㉗와 ㉔는 입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㉗에 비해 ㉔는 입에 대한 적극적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이다.
- ④ ㉔에 비해 ㉗는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문 5】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5)

출하리 식여디여 ㉗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 님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  
 각시님 돌이야 ㉔구준비나 되쇼셔 < 각시님 달은커녕 궂은비나 되십시오. >

① ㉗와 ㉔는 입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X)  
 ◆ ㉗‘낙월(落月)’과 ㉔‘구준비’는 입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낙월(落月)’은 ‘지는 달’이 되어 잠시나마 입을 보고 사라지는 것이고, ‘궂은비’는 입의 옷을 충분히 적실 수 있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입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② ㉗와 ㉔는 입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X)  
 ◆ ㉗‘낙월(落月)’과 ㉔‘구준비’는 장애물이 아니라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③ ㉗에 비해 ㉔는 입에 대한 적극적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이다. (O)  
 ◆ ㉗‘낙월(落月)’은 ‘지는 달’이라는 의미로 입을 잠깐 동안 가까이 하는 것이므로 소극적 사랑을 나타내고, ㉔‘구준비’는 입을 충분히 적실 만큼 입에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적극적 사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낙월: 소극적 사랑 / 궂은비: 적극적 사랑 >  
 ④ ㉔에 비해 ㉗는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X)  
 ◆ ㉗‘낙월(落月)’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라기보다는 보고 싶은 입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문 5】 정답: ③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6~문8]

(가) 꺾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꺾데기는 가라.

㉡꺾데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꺾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꺾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꺾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휴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신동엽, '꺾데기는 가라' -

(나) 영화(映畵)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갈쭈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문 6】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법원직 ①  
책형 문6)

< 보기 >

신동엽은 4.19 혁명에 대하여 남다른 집념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꼽힐 수 있었던 것도 4.19 정신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는 바로 4.19 정신의 정수로부터 획득한 이념적 힘을 형상화한 작품이며, 우리가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시는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1960년대 참여 문학의 대표작이며, 이후 민중 민족 문학의 이정표 역할을 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① ㉠: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의미한다.
- ② ㉡: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가리는 부정적 대상을 의미한다.
- ③ ㉢: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잇고 살았던 부끄러움을 의미한다.
- ④ ㉣: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 중 하나가 민족 분단의 극복임을 의미한다.

【문 6】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6)

- ① ㉠: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의미한다. (O)
  -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로 보아 사월의 알맹이, 즉 4·19혁명의 순수한 정신만 남고 껍데기(부정적 존재들)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② ㉡: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가리는 부정적 대상을 의미한다. (X)
  - ◆ '㉡껍데기는 가라.'에서 '껍데기'는 부정적 대상은 맞지만 '껍데기는 가라'는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가리는 부정적 대상에 대한 **저항적 자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③ ㉢: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잇고 살았던 부끄러움을 의미한다. (X)
  - ◆ '㉢부끄럼 빛내며'는 순수한 정신을 잇는 부끄러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념과 사상의 대립을 초월하여 서로 화합하고 함께하는 **우리 민족의 순수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 중 하나가 민족 분단의 극복임을 의미한다. (O)
  - ◆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우리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문 6】 정답: ②, ③

【문 7】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7)

- ① ㉠의 아름다운 모습이 화자가 ㉡를 지향하는 대상을 비웃는 계기가 된다.
- ② 화자가 ㉡로 지향하는 이유는 ㉠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모습 때문이다.
- ③ 화자는 ㉠에서의 삶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를 잊고 자리에 앉게 된다.
- ④ ㉡를 향하는 대상은 ㉠에 남아 있는 화자를 부러워한다.

【문 7】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7)

- ① ㉠의 아름다운 모습이 화자가 ㉡를 지향하는 대상을 비웃는 계기가 된다. (X)
  - ◆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로 보아 '이 세상'은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세상임을 알 수 있다.
- ② 화자가 ㉡로 지향하는 이유는 ㉠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모습 때문이다. (O)
  -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으로 보아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곳, 즉 억압과 강압이 없는 자유가 있는 세상으로 가고자 한다.
- ③ 화자는 ㉠에서의 삶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를 잊고 자리에 앉게 된다. (X)
  - ◆ 화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키고 보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한다. 또한 '㉡이 세상 밖'을 의미하는 자유로운 세상을 잇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억압이 가득한 상황이라 체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를 향하는 대상은 ㉠에 남아 있는 화자를 부러워한다. (X)
  - ◆ ㉡를 향하는 대상이 ㉠에 남아 있는 화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는 자유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이 세상 밖'으로 가고자 한다.

【문 7】 정답: ②

**【문 8】** (가)와 (나)의 화자가 만나 나는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법원직 ①책형 문8)

- ① (가): 현재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지만 부정적 대상들을 제거한다면 이 현실을 극복 할 수 있어요.
- ② (나): 네. 제가 놓여있는 공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역시 다른 세상을 꿈꾸고 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 ③ (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극복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 ④ (나):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도 남아서 부정적 현실과 맞서 싸우려고 해요.

**【문 8】**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8)

① (가): 현재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지만 부정적 대상들을 제거한다면 이 현실을 극복 할 수 있어요. (O)

◆ '꺾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로 보아 부정적 대상들(꺾데기, 쇠붙이)을 제거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한 반도가 갈등의 이념을 없애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② (나): 네. 제가 놓여있는 공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역시 다른 세상을 꿈꾸고 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O)

◆ 억압과 강압이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한다. 또한 '이 세상 밖'을 의미하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 세상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

③ (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극복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O)

◆ '꺾데기는 가라 / 쇠붙이는 가라'로 보아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보다는 부정적 세력들을 쫓아내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④ (나):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도 남아서 부정적 현실과 맞서 싸우려고 해요. (X)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 길이 보전하세로 /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로 보아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고자 하나 억압과 강압이 가득한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체념과 좌절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정적 현실과 맞서 싸우려는 적극적 자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 8】** 정답: ④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9~문10]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서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문 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9)

- ① 처음과 끝을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문장의 구조가 점차 확대되며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 ③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④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문 9】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9)**

(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1936)

(나) 김수영의 '눈'(1957)

① 처음과 끝을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X) → (가)의 경우 처음과 끝을 상응시키는 수미상관(首尾相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의 경우 처음과 끝을 상응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문장의 구조가 점차 확대되며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X) → 문장의 구조가 점차 확대되며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 아니라 (나)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③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O)

◆ (가)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인 '모란'을 계속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있고, (나)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는 '눈'으로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위해 '기침을 하자 / 가래를 뱉자'로 하여 구체적 행위를 하고 있다.

④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X) → 선명한 색채 대비는 (가), (나) 모두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의 경우 '하얀 눈'과 시련과 어두운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새벽'은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9】 정답: ③**

**【문 10】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법원직 ①책형 문10)**

① ㉠과 ㉡은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② ㉠과 ㉡은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시간적 배경이다.

③ ㉠은 ㉡과 달리 화자에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④ ㉡은 ㉠과 달리 화자가 소망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시간이다.

**【문 10】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10)**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 봄:

◆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 밤:

① ㉠과 ㉡은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X) → '㉠봄'은 긍정적 이미지를 의미하고 '㉡밤'은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로 보아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고 있어 '봄'은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로 보아 '밤'은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



c. 접갈: 접(은) + 갈(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 관형사형 어미 '은'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d. 부슬비: 부슬(부사) + 비(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데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우리말의 어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e. 돌아가다: 돌(용언의 어간) + 아(연결 어미) + 가다 - **통사적 합성어** < 연결 어미가 생략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말의 어법에 맞다.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이다. >

f. 오르내리다: 오르다 + 내리다 - **비통사적 합성어** < '오르고 내리다'에서 연결 어미 '고'가 생략되어 우리말의 어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문11】 정답: ②

【문 12】 다음 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법원직 ①책형 문12)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白茂線)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① 수사적 의문을 통해 시상을 환기하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시적허용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응축되어 표현이 된다.
- ③ 잉크병이 얼 정도로 추운 밤이지만 '눈'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 ④ '눈'과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색채대비를 이루며 문명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문 12】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12)**

① 수사적 의문을 통해 시상을 환기하며 시상이 전개된다. (O)

◆ ‘눈이 오는가 ~ 내리는가 /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로 보아 수사적 의문문(반어적 의문문)을 통해 시상을 환기하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수사 의문문: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의문문. 예를 들어 “철수한테 책 한 권 못 사 줄까?”의 ‘못 사 줄까’는 ‘사 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 = 반어 의문문 >

② 시적허용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응축되어 표현이 된다. (O)

◆ ‘눈이 오는가 북쪽엔 ~ 눈이 오는가 북쪽엔’으로 보아 우리말의 일반적 어법이 아닌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허용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응축되어 표현하고 있다.

◆ 시적허용: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을 우리말의 어법에 어긋나게 표현하여 운율적 효과를 주거나 시적효과를 강화하고자 사용하는 시상 전개 방법.

③ 잉크병이 얼 정도로 추운 밤이지만 ‘눈’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O)

◆ 잉크병이 얼 정도로 추운 밤이지만 ‘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매개체’로 일반적인 시련의 이미지가 아닌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④ ‘눈’과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색채대비를 이루며 문명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X)

◆ ‘눈’과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문명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눈’과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둘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문 12】 정답: ④**

**【문 13】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표준발음법에 맞는 것은? (2017법원직 ①책형 문13)**

① 깨끗이[깨끄치] 씻어라

② 신문[심문]을 보아라

③ 벌레를 뵈다[뵈:따]

④ 책을 읽지[일찌] 말고 써라

**【문 13】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13)**

① 깨끗이[깨끄치] 씻어라 (X) → [깨끄시]

**골**

◆ ‘끗’의 ‘스’이 ‘이’와 결합하여 연음되어 발음된다. 따라서 [깨끄시]

★ 적을 때는 ‘이’이지만 발음할 때에는 ‘시’이다.

② 신문[심문]을 보아라 (X) → [신문]

**라**

**면**

◆ ‘신문’을 [심문]으로 발음하는 양순음화인데 이는 비표준 발음이다.

◆ 양순음(兩脣音):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ㅂ’, ‘ㅃ’, ‘ㅍ’, ‘ㅁ’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벌레를 밟다[밥:따] (O)

◆ 겹받침 ‘ㄹ’은 일반적으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지만 ‘밟다’의 경우에는 [ㅂ]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밥:따]가 옳고 또한 첫소리가 긴소리로 발음된다는 것도 기억하자.

통

④ 책을 읽지[일찌] 말고 써라 (X) → [익찌]

산

◆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익찌]로 발음한다.

【문 13】 정답: ③

【문 14】 다음 글의 ㉠~㉣에 들어갈 접속어로 짝지어진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14)

동양에서 ‘도(道)’는 인간이 지켜야 하는 것인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도(道)란 원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는 말로 사람을 일정한 지점으로 이끄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본래의 의미는 점차 확대되고 풍부하게 되었다. 하지만 길이라는 의미로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 된 것은 아니다.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을 통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확대되어 길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길은 목적지와 연결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이 곧 목적지 위에 있다는 말과도 같다. 여기로부터 길은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

도가 확대된 의미를 갖게 되면서 유가(儒家)에서는 천도(天道) 라는 말을 인도(人道)와 구분하여 사상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천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궁극의 존재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담당하며 자연의 변화를 주관하는, 천지 만물의 원초적 근원자인 하늘이다. ( ㉠ ) 하늘의 길은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길이며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길, 즉 사람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 늘 실천해야 하는 예의 규범, 도덕 원칙을 뜻하는 인도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춘추 시대 때 유가에서는 자연이나 초자연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천도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음양가(陰陽家)는 사회적 문제보다는 자연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한나라 때의 동중서는 이 둘을 합하여 천인감응의 설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천문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늘이 사람에게 바른 도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 ㉡ ) 이를 잘 살피서 사회를 올바르게 운영하면 사람의 도는 하늘의 도와 일치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저마다 하늘과 감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천인감응은 하늘을 대신하는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왕이다. 제왕의 정치가 바르면 하늘은 상서로운 구름과 알맞게 내리는 비로써 제왕의 덕을 칭송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자연재해로써 견책을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인감응의 설은 제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이었다.

( ㉢ )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여기에 깊은 의문을 가졌다. 제왕만이 하늘의 이치와 합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바른 도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송나라의 유학자

들이 찾은 답은 하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을 주었으며, 사람은 이를 따르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것이다. 하늘이 준 성은 곧 하늘의 이치, 곧 천도를 말한다. 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그릇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을 따라 행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이것은 사람의 도리, 곧 인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천도와 인도의 합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윤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                      ㉢

- ① 그래서 - 그러므로 - 그런데  
 ② 그래서 - 그런데 - 그러므로  
 ③ 그런데 - 그러므로 - 그래서  
 ④ 그런데 - 그래서 - 그러므로

**【문 14】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14)**

㉠                      ㉡                      ㉢

① **그래서** - **그러므로** - **그런데**

㉠ - ‘바로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담당하며 자연의 변화를 주관하는, 천지 만물의 원초적 근원자인 하늘이다. ( ㉠ ) 하늘의 길은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길이며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에서 ㉠뒷부분은 ㉡앞부분을 근거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해주므로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가 적절하다.

◆ **그래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 - ‘그에 따르면 천문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늘이 사람에게 바른 도리를 알려 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 ㉡ ) 이를 잘 살피서 사회를 올바르게 운영하면 사람의 도는 하늘의 도와 일치 하게 되는 것이다.’에서 또한 ㉡뒷부분은 ㉢앞부분을 근거로 좀 더 자세히 도출하므로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가 적절하다.

◆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 - ‘그렇기 때문에 천인감응의 설은 제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이었다. ( ㉢ )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여기에 깊은 의문을 가졌다. 제왕만이 하늘의 이치와 합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바른 도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서 ㉢앞부분은 ‘천인감응의 설은 제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이었다.’로 기술했는데 ㉢뒷부분은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여기에 깊은 의문을 가졌다. 제왕만이 하늘의 이치와 합한다면 ~ ’로 보아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그런데’가 적절하다.

◆ **그런데**: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

**【문 14】 정답: ①**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5~문16]

아들러는 우월성이란 개념을 자기완성 혹은 자아실현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아들러는 인간의 자기 신장, 성장, 능력을 위한 모든 노력의 근원이 열등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단지 열등감의 해소만을 추구하는가?’, ‘인간은 단지 타인을 능가하기 위해서만 동기화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아들러는 1908년까지는 ‘공격성’으로, 1910년경에는 ‘힘에 대한 의지’로, 그 후부터는 ‘우월성 추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우월성의 추구는 삶의 초적인 사실로 모든 인간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부족한 것은 보충하며, 낮은 것은 높이고, 미완성의 것은 완성하며, 무능한 것은 유능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성이다. 즉 우월성의 추구는 모든 사람의 선천적인 경향성으로 일생을 통해 환경을 적절히 통제하며 동기의 지침이 되어 심리적인 활동은 물론 행동을 안내한다. 아들러는 우월성의 추구를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기초에서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는 양식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월성 추구의 노력은 인간을 현 단계에서 보다 넓은 단계의 발달로 이끌어 준다. 모든 욕구는 완성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분리된 욕구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월성 추구는 그 자체가 수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나 성숙을 추구하는 일정한 노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월성의 추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설명된다.

첫째, 우월성의 추구는 유아기의 무능과 열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초적 동기이다. 둘째, 이 동기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추구의 목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이 있다. 긍정적 방향은 개인의 우월성을 넘어서 사회적 관심, 즉 타인의 복지를 추구하며, 건강한 성격이다. 부정적 방향은 개인적 우월성, 즉 이기적 목표만을 추구하며, 이를 신경증적 증상으로 본다. 넷째, 우월성의 추구는 많은 힘과 노력을 소모하는 것이므로 긴장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한다. 다섯째, 우월성의 추구는 개인 및 사회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즉 개인의 완성을 넘어서 문화의 완성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들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우월성의 추구가 건전하게 이루어진 성격에 사회적 관심을 가미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관심을 가진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한 우월성 추구가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문 15】**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15)

- ① 다양한 사례를 분류하여 나열하고 있다.
- ② 하나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한다.
- ③ 중심 대상의 개념을 밝히고 특징을 설명한다.
- ④ 서로 다른 관점을 절충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낸다.

**【문 15】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15)**

① 다양한 사례를 분류하여 나열하고 있다. (X) → 다양한 사례를 분류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월성 추구’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② 하나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한다. (X) → 하나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성 추구’의 개념을 밝히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③ 중심 대상의 개념을 밝히고 특징을 설명한다. (O)

◆ ‘우월성의 추구는 삶의 초적인 사실로 모든 인간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부족한 것은 보충하며, 낮은 것은 높이고, 미완성의 것은 완성하며, 무능한 것은 유능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성이다. 즉 우월성의 추구는 모든 사람의 선천적인 경향성으로 일생을 통해 환경을 적절히 통제하며 동기의 지침이 되어 심리적인 활동은 물론 행동을 안내한다.’로 보아 ‘우월성의 추구’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 ‘우월성의 추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설명된다. ~ 첫째, 우월성의 추구는 유아기의 무능과 열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초적 동기이다. 둘째, 이 동기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추구의 목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이 있다. 긍정적 방향은 개인의 우월성을 넘어서 사회적 관심, 즉 타인의 복지를 추구하며, 건강한 성격이다. 부정적 방향은 개인적 우월성, 즉 이기적 목표만을 추구하며, 이를 신경증적 증상으로 본다. 넷째, 우월성의 추구는 많은 힘과 노력을 소모하는 것이므로 긴장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한다. 다섯째, 우월성의 추구는 개인 및 사회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즉 개인의 완성을 넘어서 문화의 완성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들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로 파악하였다.’로 보아 ‘우월성의 추구’의 특징들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④ 서로 다른 관점을 절충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낸다. (X) → 서로 다른 관점을 절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월성의 추구는 삶의 초적인 사실로 모든 인간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부족한 것은 보충하며, 낮은 것은 높이고, 미완성의 것은 완성하며, 무능한 것은 유능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성이다.’로 보아 ‘우월성의 추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문 15】 정답: ③**

**【문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16)

- ① 우월성을 추구할수록 긴장이 이완된다.
- ② 인간은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추구한다.
- ③ 우월성 추구가 개인의 우월성에 한정한다면 건강한 성격으로 발현된다.
- ④ 우월성 추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달성된 후에 사회적 수준으로 나아간다.

【문 16】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16)

① 우월성을 추구할수록 긴장이 이완된다. (X)

◆ '넷째, 우월성의 추구는 많은 힘과 노력을 소모하는 것이므로 긴장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한다.'로 보아 긴장이 오히려 증가한다.

② 인간은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추구한다. (O)

◆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월성 추구의 노력은 인간을 현 단계에서 보다 넓은 단계의 발달로 이끌어 준다. 모든 욕구는 완성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분리된 욕구란 존재하지 않는다.'로 보아 인간은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우월성 추구가 개인의 우월성에 한정한다면 건강한 성격으로 발현된다. (X) → '우월성의 추구는 ~ 긍정적 방향은 개인의 우월성을 넘어서 사회적 관심, 즉 타인의 복지를 추구하며, 건강한 성격이다.'로 보아 '우월성 추구가 개인의 우월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우월성을 넘어서야 건강한 성격으로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우월성 추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달성된 후에 사회적 수준으로 나아간다. (X) → '다섯째, 우월성의 추구는 개인 및 사회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즉 개인의 완성을 넘어서 문화의 완성도 도모한다는 것이다.'로 보아 '우월성 추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달성된 후에 사회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월성의 추구는 개인 및 사회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문 16】 정답: ②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7~문20]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푸코의 규율사회는 더 이상 오늘의 사회가 아니다. 규율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사회가 들어선 것이다. 그것은 피트니스 클럽, 오피스 빌딩, 은행, 공항, 쇼핑몰, 유전자 실험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갈라놓는 규율 기관들의 장벽은 이제 거의 고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규율사회가 성과사회로 변모하면서 ㉡일어난 심리적·공간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주 사용되는 “통제사회”와 같은 개념 역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것이 못 된다. 그런 개념 속에는 지나치게 많은 부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금지의 부정성이다. ‘~해서는 안 된다’가 여기서는 지배적인 조동사가 된다. ‘~해야 한다’에도 어떤 부정성, 강제의 부정성이 ㉢깃들여 있다. 성과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점증하는 탈규제의 경향이 부정성을 폐기하고 있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사회의 긍정적 조동사이다. “에스 위 캔”이라는 복수형 긍정은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 준다. 이제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규율사회에서는 여전히 ‘노’가 지배적이었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하나의 층위에서만은 연속성을 유지한다.

사회적 무의식 속에는 분명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다. 생산성이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규율의 기술이나 금지라는 부정적 도식은 곧 그 한계를 드러낸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규율의 패러다임은 '성과의 패러다임' 내지 '할 수 있음'이라는 긍정적 도식으로 대체된다. 생산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금지의 부정성은 그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무의식은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다. 그렇다고 능력이 당위를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다. 성과주체는 규율에 단련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는 규율 단계를 졸업한 것이다. 능력은 규율의 기술과 당위의 명령을 통해 도달한 생산성의 수준을 더욱 상승시킨다.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당위와 능력 사이에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 관계가 성립한다.

성과주체는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착취하는 외적인 지배기구에서 자유롭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자 주권자이다. 그는 자기 외에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점에서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와 구별된다. 그러나 지배기구의 소멸은 자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멸의 결과는 자유와 강제가 일치하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성과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긴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달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 관계적 상태는 어떤 역설적 자유, 자체 내에 존재하는 강제구조로 인해 폭력으로 돌변하는 자유를 낳는다. 성과사회의 심리적 질병은 바로 이러한 역설적 자유의 병리적 표출인 것이다.

**【문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법원직 ①책형 문17)

- ①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충적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 ②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 ③ 글쓴이의 관점을 명시한 뒤 그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하고 있다.
- ④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식에 나타난 변화를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문 17】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17)**

- ①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충적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X) → 이 글에서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또한 절충적 대안을 내세우고 있지도 않다.
- ②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X) →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는 하나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글쓴이의 관점을 명시한 뒤 그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하고 있다. (O)
  - ◆ '21세기의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 ~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하나의 층위에서만은 연속성을 유지한다.'로 보아 글쓴이의 관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기 관계적 상태는 어떤 역설적 자유, 자체 내에 존재하는 강제구조로 인해 폭력으로 돌변하는 자유를 낳는다. 성과사회의 심리적 질병은 바로 이러한 역설적 자유의 병리적 표출인 것이다.'로 보아 현상을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식에 나타난 변화를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X) → 통시적(通時的)이라는 말은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의미인데 이 글에서 통시적으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문 17】 정답: ③

【문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18)

- ①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가 지닌 당위의 명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이다.
- ②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긍정성이 '해야 한다'는 당위의 부정성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 ③ 과도한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노동일지라도 자기 착취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 ④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문 18】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18)

- ①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가 지닌 당위의 명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이다. (X)  
→ '성과주체는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착취하는 외적인 지배기구에서 자유롭다.'로 보아 성과주체가 당위의 명령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노동을 강요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외적인 지배기구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다.
- ②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긍정성이 '해야 한다'는 당위의 부정성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O)  
◆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무의식은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다.'로 보아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긍정성이 '해야 한다'는 당위의 부정성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 ③ 과도한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노동일지라도 자기 착취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O)  
◆ '그러나 지배기구의 소멸은 자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멸의 결과는 자유와 강제가 일치하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성과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긴다. **과도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달는다.**'로 보아 과도한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노동일지라도 자기 착취로 이어지기까지 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O)  
◆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무의식은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다.'로 보아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18】 정답: ①

【문 19】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19)

< 보 기 >

소설 '바틀비 이야기'는 미국의 대표적 작가로 꼽히는 허먼 멜빌 (Herman Melville, 1819년~1891년)의 소설로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뉴욕 월가의 한 법률 사무소를 배경으로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필경사 바틀비(Bartleby)의 삶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된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주의를 비판한 수작이다.

바틀비가 근무하는 법률 사무소의 사면은 오래되고 그늘져서 검게 변한 높은 벽돌벽에 둘러 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답답한 사무실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한 쪽은 60세가량의 화자인 변호사가, 다른 한 쪽은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는 바틀비를 비롯한 세 명의 필경사가 사용한다.

60세가량의 필경사 칠면조(Turkey)는 오전에는 온순하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지만 오후만 되면 비정상적으로 변해 혼란스럽고 목표 없는 분주한 활동으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다. 젊은 필경사 니퍼즈(Nippers)는 소화불량 때문에 고통 받으며 일을 할 때 이를 부득부득 갈고 끊임없이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는다. 이들과 달리 바틀비는 침묵하며 돌처럼 굳어 한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한다. 그러던 바틀비는 갑자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변호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되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고 노동과 음식을 거부하다가 아사하고 만다.

- ① 자본주의 사회가 야기한, 아무런 의욕도 없는 무감각 상태의 징후를 보여주는 탈진한 인간의 이야기로 해석해야겠군.
- ② 규율사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벽과 감옥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멜빌은 규율사회를 묘사하였다고 해석해야겠군.
- ③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는 그저 단조로운 필사 작업뿐인 복종적 주체인 바틀비를 병들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긍정성 때문은 아니라고 해석해야겠군.
- ④ 작업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되기를 선택한 바틀비는 후기 근대사회가 요구하는 과중한 자아부담을 스스로 거부하는 잠재력을 지닌 위대한 존재로 해석해야겠군.

【문 19】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19)

① 자본주의 사회가 야기한, 아무런 의욕도 없는 무감각 상태의 징후를 보여주는 탈진한 인간의 이야기로 해석해야겠군. (O)

◆ '바틀비는 침묵하며 돌처럼 굳어 한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한다. 그러던 바틀비는 갑자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변호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되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고 노동과 음식을 거부하다가 아사하고 만다.'로 보아 아무런 의욕도 없는 무감각 상태의 징후를 보여주는 탈진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② 규율사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벽과 감옥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멜빌은 규율사회를 묘사하였다고 해석해야겠군. (O)

◆ <윗글>에서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푸코의 규율사회'와 <보기>에서 '바틀비가 근무하는 법률 사무소의 사면은 오래되고 그늘져서 검게 변한 높은 벽돌벽에 둘러 있다.'로 보아 규율사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벽과 감옥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멜빌은 규율사회를 묘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는 그저 단조로운 필사 작업뿐인 복종적 주체인 바틀비를 병들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긍정성 때문은 아니라고 해석해야겠군. (O)

◆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로 보아 바틀비를 병들게 하는 것은 긍정성 때문이 아니라 규율사회의 부정성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④ 작업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되기를 선택한 바틀비는 후기 근대사회가 요구하는 과중한 자아 부담을 스스로 거부하는 잠재력을 지닌 위대한 존재로 해석해야겠군. (X) → '이들과 달리 바틀비는 침묵하며 돌처럼 굳어 한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한다.'로 보아 바틀비는 위 글에서 말하는 '복종적 주체'에 해당한다. 또한 '바틀비는 갑자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변호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되고'로 보아 과중한 자아 부담을 스스로 거부하며 잠재력을 지닌 위대한 존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 19】 정답: ④

【문 2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20)

- ① ㉠ 구별(區別) 짓는
- ② ㉡ 발생(發生)한
- ③ ㉢ 침잠(沈潛)해
- ④ ㉣ 잠재(潛在)해

【문 20】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20)

① ㉠갈라놓은 - 구별(區別) 짓는 (O)

◆ 구별(區別):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② ㉡일어난 - 발생(發生)한 (O)

◆ 발생(發生):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 '생김', '일어남'으로 순화.

③ ㉢깃들여 - 침잠(沈潛)해 (X)

◆ 침잠(沈潛):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물속 깊숙이 가라앉거나 숨음. /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함.

● 깃들다: 아늑하게 서려 들다. / 감정, 생각,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미다.

< 활용: 깃들여, 깃드니, 깃드오 >

cf. 깃들이다: 주로 조류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 /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 잡다. < 활용: 깃들이어, 깃들여, 깃들이니 >

④ ㉣숨어 - 잠재(潛在)해 (O)

◆ 잠재(潛在):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있거나 숨어 있음.

【문 20】 정답: ③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21~문25]

(가) 동명왕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아무리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이라도 이 이야기만은 잘 알 줄 안다.

나도 일찍 이 이야기를 들었건만 그때 나는 웃고 말았다. 공자가 괴상하고 요란한 귀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하기에 이 역시 황당하고 괴이한 이야기인지라 우리들이 즐겨 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뒤 ‘위서(魏書)’와 ‘통전(通典)’을 읽으니 거기에 또한 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내용이 간략하여 상세하지 못하였다. 자기네 중국 이야기라면 자세히 썼으련만 다른 나라 이야기라 이다지 간략하게 쓴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계축년(1193) 4월 ‘구삼국사’를 구하였는데 거기에 실린 ‘동명왕 본기’를 보니 신비로운 사적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역시 잘 믿기지 않아 그저 괴상하고 황당한 이야기려니 하였다. 그러다가 여러 번 거듭 읽으면서 참 뜻을 생각하고 그 근원을 찾아보니, 이것은 황당한 것이 아니요 성스러운 것이며, 괴상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었다. 하물며 나라역사의 정직한 필치에 무슨 거짓이 있겠는가!

김부식 공이 다시 ‘국사’를 편찬하면서 동명왕의 사적을 자못 간략하게 다루었는데, 공은 아마 국사란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라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함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생각건대 당나라 ‘현종 본기’와 ‘양귀비전’을 보면 방사(方士)가 하늘과 땅을 오르내렸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시인 백낙천(白樂天, 백거이)이 그러한 이야기가 희미해져 없어질까 봐 ‘장한가(長恨歌)’를 지어 그 사연을 밝혀두었다. 실상 그 이야기야 거칠고 음탕하며 황당한 것이지만 그래도 시로 노래하여 ㉡훗대에 전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동명왕의 이야기라. 동명왕의 이야기는 변화무쌍하고 신비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로 우리나라가 처음 창건되던 때의 신성한 자취를 나타내려 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서술해 두지 않으면 ㉢뒷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그러므로 내 노래로 이 사적을 기록하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본디 성인이 이룩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이다.

- 이규보, ‘동명왕편 병서’ -

(나) 십구 일의 남문 대장(南門大將) 구굉(具宏)이 발군(拔軍)하여 싸화 도적 이십 명을 죽이다. 대풍(大風)하고, 비 오려 하더니 김청음(金淸陰)을 명(命)하여 성황신(城隍神)의 제(祭) 하니, 바람이 그치고 비 아니 오니라.

이십 일의 마장(馬將)이 통사(通使) 덩명슈(鄭命壽)를 보니야 화친(和親)하기를 언약(言約)할시 성문을 여디 아니하고 성우(城隅)히서 말을 던(擲)히게 하다.

이십일 일의 어영 별장(御營別將) 니기특(李起築)이 군을 거느려 도적 여라문을 죽이고, 동문 대장(東門大將) 신경진(申景禎)이 발군(拔軍)하여 도적을 죽이다.

이십이 일의 쏘 마부대(馬夫大) | 통사(通事)를 보니야 날오디, 이제는 동궁(東宮)을 청티 아니니, 만일 왕(王) 대신을 보니면 덩(命)하야 화친(和親)하야 하디, 상(上)이 오히려 허티 아니시다. 북문 어영군이 도적 여라문을 죽이고, 신경진이 쏘 설흔(設扈)아문을 죽이다. 상(上)이 내정(內廷)의셔 호군(稿軍)하시다.

(중략)

이십소 일의 대위(大雨)이 누리니, 성첩(城堞) 직흰 군시다 적시고 여러 죽으 니 만흐니, 상이 세즈(世子)로 더브러 쓸 가운데 서서 하늘의 비를 곁오샤디,

“금일 이에 나르기는 우리 부지 득죄(得罪)하미니, 일성 군민(一城軍民)이 무슴 죄리잇고. 턴되(天道) 우리 부즈의게 화를 나리오시고, 원컨대 만민을 살오쇼셔.”

군신들이 드르시기를 청하디 허티 아니하시더니, 미구(未久)의 비 곳치고, 일과 츠지 아니 하니, 성등인(城中人)이 감읍(感泣)디 아니리 업더라.

이십오 일의 극한(極寒)하다. 묘당(廟堂)이 적진의 스신 보니기를 청하오니, 상이 곁오샤디,

“아국이 미양 화친으로써 저의게 속으니, 이제 또 스신을 보니야 욱될 줄 아디, 모든 의논이 이러하니 이 세시(歲時)라, 술, 고기를 보니고 은합(銀盒)의 실과를 담아 써 후정(厚情)을 뵈 후, 인하야 접담(接談)하야 고식을 살피리라.” 하시디.

이십육 일의 니경직(李景稷), 김신국(金薰國)이 술, 고기은합을 가지고 적진의 가니, 적장이 곁오디,

“군등(軍中)의 날마다 쇼 잡고 보물이 되긋티 빠혀시니, 이거술 으어시 쓰리오. 네 나라 군신(君臣)이 돌 굵기셔 굴먼 지 오라니, 가히 스스로 뵈죽하도다.” 하고, 드디여 밧디 아니 하고, 도로 보니니라.

이십칠 일의 날마다 성등의 구완하라 오논 군시를 바라디 일인도 오느니 업고더라.

- 어느 궁녀, '산성일기' -

【문 21】 (가)를 쓴 작가 이규보의 생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법원직 ① 채형 문21)

- ① 우리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구별하여 소중히 전해져야 한다.
- ② 우리나라가 창건되던 때의 역사는 신성한 것이기에 거짓이더라도 기록해야 한다.
- ③ 김부식은 동명왕의 사적을 아마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여겼을 것이다.
- ④ '장한가'는 거칠고 음탕하며 황당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 21】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21)

① 우리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구별하여 소중히 전해져야 한다. (O)

◆ "위서(魏書)'와 '통전(通典)'을 읽으니 거기에 또한 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내용이 간략하여 상세하지 못하였다. 자기네 중국 이야기라면 자세히 썼으련만 다른 나라 이야기라 이다지 간략하게 쓴 것이 아니겠는가. ~ 이것을 이제 서술해 두지 않으면 뒷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그러므로 내 노래로 이 사적을 기록하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본디 성인이 이룩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이다."로 보아 우리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구별하여 소중히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가 창건되던 때의 역사는 신성한 것이기에 거짓이더라도 기록해야 한다. (X)

◆ '여러 번 거듭 읽으면서 참뜻을 생각하고 그 근원을 찾아보니, 이것은 황당한 것이 아니요 성스러운 것이며, 괴상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었다. 하물며 나라역사의 정직한 필치에 무슨 거짓이 있겠는가!'로 보아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김부식은 동명왕의 사적을 아마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여겼을 것이다. (O)

◆ ‘김부식 공이 다시 ‘국사’를 편찬하면서 동명왕의 사적을 자못 간략하게 다루었는데, 공은 아마 국사란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라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함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로 보아 김부식은 동명왕의 사적을 아마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여겼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장한가’는 거칠고 음탕하며 황당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O)

◆ ‘시인 백낙천(白樂天, 백거이)이 그러한 이야기가 희미해져 없어질까 봐 ‘장한가(長恨歌)’를 지어 그 사연을 밝혀두었다. 실상 그 이야기야 거칠고 음탕하며 황당한 것이지만 그래도 시로 노래하여 훗대에 전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동명왕의 이야기라.’로 보아 ‘장한가’는 거칠고 음탕하며 황당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21】 정답: ②

【문 22】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22)

< 보 기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꺾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깨열, 뒷웃, 두렛일, 뒷일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꺾병, 머릿방, 뱃병, 붓독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갯날, 제삿날, 훗날, 텃마루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간편하게→간편케, 연구하도록→연구토록

(붙임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앓고, 앓지, 앓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붙임2)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다 못해→생각다 못해

- ① ㉠은 ‘생각하건대’의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므로 ‘생각컨대’로 수정해야겠군.
- ② ㉡은 두 음절의 한자어이므로 ‘훗대’가 아닌 ‘후대’로 수정해야겠군.
- ③ ㉢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뒷세상’은 적절한 표기이군.
- ④ ㉣은 ‘어떠하게’에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어떻게’로 줄어진 경우로 적절한 표기이군.

**【문 22】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채형 문22)**

① ㉠은 ‘생각하건대’의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므로 ‘생각컨대’로 수정해야겠군. (X) → 생각**컨대**

◆ ‘(붙임2)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로 보아 ‘생각**컨대**’가 옳다.

④ **영보이 암기tip**) 생각**컨대**. 지하철 노선도에서 ‘**컨대**입구’ 옆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었던 것 같다.

② ㉡은 두 음절의 한자어이므로 ‘훗대’가 아닌 ‘후대’로 수정해야겠군. (O)

◆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는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튀간, 횃수’만 사이시옷을 쓰므로 ‘훗대’가 아닌 ‘후대’가 옳다.

◆ 후대(後代): 뒤에 오는 세대나 시대

③ ㉢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뒷세상’은 적절한 표기이군. (O)

◆ 뒤(순 우리말) + 세상(世上: 한자어) = **뒷세상** ≒ 내세(來世)

◆ 뒷세상: 삼세(三世)의 하나.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을 이른다.

④ **영보이 암기tip**) **뒷다리를 굽히고 뒷세상을 생각해 본다.** < 뒷다리 - 뒷세상 >

④ ㉣은 ‘어떠하게’에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어떻게’로 줄어진 경우로 적절한 표기이군. (O) **【문 22】 정답: ①**

**【문 2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법원직 ①채형 문23)**

< 보 기 >

1636년 국호를 청(淸)으 고친 청 태종은 조선에 최후통첩을 보내 조선의 왕자를 볼모로 보내고 청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척화론자들을 압송하라고 요구한다. 조선의 집권층이 이를 무시하자, 청 태종은 그해 12월 조선에 침입한다. 청의 선봉 부대가 한양에 접근하자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나, 곧 청군에 포위된다.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하고, 청은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볼모로 잡고 대표적인 척화론자들인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 3학사를 체포해 철군한다.

- ① 실제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군.
- ② ‘돌 굴기’는 적장이 남한산성을 멸시하여 이른 말이겠군.
- ③ 글쓴이는 척화론자들의 현실 감각 결여를 비판하고 있군.
- ④ 날이 갈수록 전세가 불리해지는 가운데 조정의 의견이 척화보다는 화친으로 모아졌군.

**【문 23】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23)**

(나)산성일기(山城日記): 조선 인조 때에, 어느 궁녀가 쓴 일기체 수필. 병자호란 때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피난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일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조반정 때의 일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① 실제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군. (O)
  - ◆ 산성일기는 병자호란(丙子胡亂)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다.
- ② ‘돌 굴기’는 적장이 남한산성을 멸시하여 이른 말이겠군. (O)
  - ◆ “군중(軍中)의 날마다 쇼 잡고 보물이 뭉긋티 빠져시니, 이거술 무어시 쓰리오. 네 나라 군신(君臣)이 돌 굴기셔 굴면 지 오라니, 가히 스스로 뵈죽호도다.” 하고, 드디여 밧디 아니호고, 도로 보니니라. < “우리 군중은 날마다 쇼를 잡고 보물이 산같이 쌓였으니, 이것을 무엇에 쓰리오? 당신 나라 군신이 돌구멍에서 굶은 지 오래니 가히 스스로 쓰는 것이 옳으리라.” 하고, 결국 밧지 아니하고 도로 보냈다. >
- ③ 글쓴이는 척화론자들의 현실 감각 결여를 비판하고 있군. (X) → 글쓴이가 척화론자들을 비판한다는 내용을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산성일기는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 ④ 날이 갈수록 전세가 불리해지는 가운데 조정의 의견이 척화보다는 화친으로 모아졌군. (O)
  - ◆ ‘만일 왕즈 대신을 보니면 명호야 화친호자’로 보아 조정의 의견이 척화보다는 화친을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만일 왕자 · 대신을 보내면 싸움을 그치고 화친하리라. >

**【문 23】 정답: ③**

**【문 24】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17법원직 ①책형 문24)**

- ① 조선은 청의 통역사로 남한산성에 온 정명수를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② 임금은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 죽는 병사들을 보고 비통함을 느껴 하늘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③ 적장은 매번 화친에 속았지만 굶고 있는 상대에 대한 연민으로 선물인 술과 고기를 되돌려 주었다.
- ④ 성 안의 신하와 백성들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처해있다.

**【문 24】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24)**

① 조선은 청의 통역사로 남한산성에 온 정명수를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O)

◆ 이십 일의 마장(馬將)이 통사(通使) 정명수(鄭命壽)를 보니아 화친하기를 언약할시 성문을 여디 아니하고 성우히셔 말을 던히게 한다. < 이십일에 마장이 통사 정명수를 보내어 화친하기를 언약했는데 성문을 열지 아니하고 성 위에서 말을 전하게 하였다. >

② 임금은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 죽는 병사들을 보고 비통함을 느껴 하늘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O)

◆ 이십삭 일의 대위(大雨) 1) 누리니, 성첩(城堞) 직힌 군시다 적시고 어려 죽으 니 만흐니, 상이 세자(世子)로 더브러 쓸 가운데 셔셔 하늘기 비러 글오사디,

“금일 이에 나르기는 우리 부지 득죄하미니, 일성 군민(一城軍民)이 무슴 죄리잇고. 천도(天道) 1) 우리 부주의게 화를 나리오시고, 원컨대 만민을 살오쇼셔.” < 이십사일에 큰비가 내리니, 성첩을 지키던 군사가 옷을 적시고 얼어 죽은 이가 많으니, 임금이 세자와 함께 뜰 가운데 서서 하늘에 빌어 가라사대, “오늘 이에 이르기는 우리 부자(父子)가 죄를 지은 것이오, 성 안의 군사와 백성 무슨 죄가 있으리오? 하늘이 우리 부자(父子)에게 죄를 내리시고 원컨대 만민을 살리옵소서.” >

③ 적장은 매번 화친에 속았지만 굶고 있는 상대에 대한 연민으로 선물인 술과 고기를 되돌려주었다. (X) → 적장이 술과 고기를 돌려주었던 이유는 상대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조선의 군신들을 조롱하여 되돌려준 것이다.

◆ “아국이 미양 화친으로써 저의게 속으니, 이제 또 소신을 보니아 욱될 줄 아디, 모든 의논이 이러하니 이 세시(歲時)라, 술, 고기를 보니고 은합(銀盒)의 실과를 담아 써 후정(厚情)을 빈 후, 인히야 접담(接談)히야 괴식을 살피리라.” 하시다.

이십륙 일의 니경직(李景稷), 김신국(金薰國)이 술, 고기은합을 가지고 적진의 가니, 적장이 곱오디,

“군등(軍中)의 날마다 쇼 잡고 보물이 되긋티 빠혀시니, 이거술 므어시 쓰리오. 네 나라 군신(君臣)이 돌 굶고셔 곱먼 지 오라니, 가히 스스로 뵈죽히도다.” 하고, 드디여 밧디 아니 하고, 도로 보니니라. < “우리나라가 항상 화친으로 저들에게 속으니 이제 또 사신을 보내면 욱될 줄 안다. 그러나 모든 의논이 이러하니, 지금이 세시이므로 술, 고기를 보내고 은함에 과일을 담아 두터운 정을 보인 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여 기색을 살피리라.” 하시다, 이십육일에 이경직과 김신국이 술, 고기를 은함에 넣어 가지고 적진에 가니, 적장이 가로되, “우리 군중은 날마다 소를 잡고 보물이 산갈이 쌓였으니, 이것을 무엇에 쓰리오? 당신 나라 군신이 돌구멍에서 굶은 지 오래니 가히 스스로 쓰는 것이 옳으리라.” 하고, 결국 밧지 아니하고 도로 보냈다. >

④ 성 안의 신하와 백성들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처해있다. (O)

◆ 병자호란으로 인해 신하와 백성들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처해있다.

◆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 **유의어**

1)四面楚歌(사면초가): 四(넉 사) 面(낮 면) 楚(초나라 초) 歌(노래 가)

a)의미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초나라 항우가 사면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랐다는 데서 유래한다.

2)狼狽不堪(낭패불감): 狼(이리 낭) 狽(낭패할 패) 不(아닐 불) 堪(견딜 감)

a)의미: 낭패를 당할 만큼 곤란한 처지에 있음.

- 3) 進退兩難(진퇴양난): 進(나아갈 진) 退(물러날 퇴) 兩(두 양(량)) 難(어려울 난)  
 a)의미: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 4) 進退維谷(진퇴유곡): 進(나아갈 진) 退(물러날 퇴) 維(벼리 유) 谷(골 곡)  
 a)의미: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 5) 孤城落日(고성낙일): 孤(외로울 고) 城(재 성) 落(떨어질 낙(락)) 日(날 일)  
 a)의미: 외딴 성과 서산에 지는 해라는 뜻으로, 세력이 다하고 남의 도움이 없는 매우 외로운 처지를 이르는 말.
- 6) 四顧無親(사고무친): 四(넋 사) 顧(돌아볼 고) 無(없을 무) 親(친할 친).  
 a)의미: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문 24】 정답: ③

【문 25】 다음은 (나)의 26일에 있었던 조선과 청의 대화 장면을 가상으로 꾸며본 것이다.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17법원직 ①책형 문25)

- ① 이경직: 마침 설날이기도 하여 우리가 두터운 정으로 술과 고기를 준비해 왔으니 받아주시고 화친합시다.
- ② 적장 : 그런 거 필요 없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곳간에 차고 넘치니 도로 가져가서 당신네 임금과 신하나 드시오.
- ③ 이경직: 왜 이러시오? 4일 전인 22일에는 당신네가 아무 조건 없이 싸움을 그치고 화친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지 않았소.
- ④ 적장 : 22일에 다시 화친을 제의했을 때라도 받았어야지요. 자, 이 술과 고기를 갖고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문 25】 정답 및 해설 (2017법원직 ①책형 문25)

① 이경직: 마침 설날이기도 하여 우리가 두터운 정으로 술과 고기를 준비해 왔으니 받아주시고 화친합시다. (O)

◆ “아국이 미양 화친으로써 저의게 속으니, 이제 또 스신을 보니야 욱될 줄 아디. 모든 의논이 이러하니 이 세시(歲時)라, 술, 고기를 보니고 은합(銀盒)의 실과를 담아 써 후정(厚情)을 뵈 후, 인하여 접담(接談)하여 고식을 살피리라.” 하시다. < “우리나라가 항상 화친으로 저들에게 속으니 이제 또 사신을 보내면 욱될 줄 안다. 그러나 모든 의논이 이러하니, **지금 세시이므로 술, 고기를 보내고 은함에 과일(果實)을 담아 두터운 정을 보인** 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여 기색을 살피리라.” 하시다. >

② 적장 : 그런 거 필요 없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곳간에 차고 넘치니 도로 가져가서 당신네 임금과 신하나 드시오. (O)

◆ 이십륙 일의 니경직(李景稷), 김신국(金薰國)이 술, 고기은합을 가지고 적진의 가니, 적장이 곱오디,

“군중(軍中)의 날마다 쇼 잡고 보물이 뭉긋티 빠허시니, 이거술 므어시 쓰리오. 네 나라 군신(君臣)이 돌 굵기셔 곱먼 지 오라니, 가히 스스로 뵈죽호도다.” 하고, 드디여 밧디 아니 하고, 도로 보니니라. < 이십육일에 이경직과 김신국이 **술, 고기를 은함에 넣어 가지고 적진에 가니, 적장이 가로되,** “우리 군중은 날마다 소를 잡고 보물이 산같이 쌓였으니, 이것을 무엇에 쓰리오? 당신 나라 군신이 돌구멍에서 굵은 지 오래니 가히 스스로 쓰는 것이 옳으리라.” 하고, **결국 밧지 아니하고 도로 보냈다.** >

③ 이경직: 왜 이러시오? 4일 전인 22일에는 당신네가 아무 조건 없이 싸움을 그치고 화친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지 않았소. (X) →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자·대신을 볼 모로 보내는 조건으로** 싸움을 그치고 화친하겠다고 하였다.

◆ 이십이 일의 또 마부대(馬夫大) | 통사(通事)를 보니여 날오디, 이제는 동궁(東宮)을 청티 아니니, 만일 왕즈 대신을 보니면 덩허야 화친허자 허디, 상이 오히려 허티 아니시다. 북문 어영군이 도적 여라문을 죽이고, 신경진이 또 설흔아문을 죽이다. 상이 니정(內廷)의셔 호군(犒軍)허시다. < 이십이일에 또 마부대 통사를 보내어 이르되, 이제는 동궁을 청하지 않겠으니, 만일 왕자와 대신을 보내면 싸움을 그치고 화친하리라 하되, 임금이 오히려 허락지 않으셨다, 북문 어영군이 도적 여러 명을 죽이고, 신경진이 또 삼십여 명을 죽였다, 임금이 궁궐에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위로하였다. >

④ 적장 : 22일에 다시 화친을 제의했을 때라도 받았어야지요. 자, 이 술과 고기를 갖고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O)

◆ 이십이 일의 또 마부대(馬夫大) | 통사(通事)를 보니여 날오디, 이제는 동궁(東宮)을 청티 아니니, 만일 왕즈 대신을 보니면 덩허야 화친허자 허디, 상이 오히려 허티 아니시다. < 이십이일에 또 마부대 통사를 보내어 이르되, 이제는 동궁을 청하지 아니하니, 만일 왕자·대신을 보내면 **싸움을 그치고 화친하리라 하되, 임금이 오히려 허락하지 않았다.** >

◆ 이십육 일의 니경직(李景稷), 김신국(金薰國)이 술, 고기은합을 가지고 적진의 가니, 적장이 굴오디,

“군등(軍中)의 날마다 쇼 잡고 보물이 되긋티 빠허시니, 이거술 므어시 쓰리오. 네 나라 군신(君臣)이 돌 굵겨셔 굴면 지 오라니, 가히 스스로 뽀죽허도다.” 허고, 드디여 밧디 아니 허고, 도로 보니니라. < 이십육일에 이경직과 김신국이 **술, 고기를 은함에 넣어 가지고 적진에 가니, 적장이 가로되, “우리 군중은 날마다 소를 잡고 보물이 산같이 쌓였으니, 이것을 무엇에 쓰리오? 당신 나라 군신이 돌구멍에서 굵은 지 오래니 가히 스스로 쓰는 것이 옳으리라.”** 하고, **결국 받지 아니하고 도로 보냈다.** >

【문 25】 정답: ③

## 영보이 국어 2017법원직 국어(①책형) 문제와 자세하고 신선한 영보이 해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와 함께 신선하고 자세한 해설 올려 드립니다. 해설만 읽어도 기본서를 읽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영보이 암기법이 있어 매우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보실 때 칼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에 색깔이 칠해 있어 암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영보이 저서 -

◆ 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판매 중 >

◆ 영보이 공무원 한자와 그의 친구들 < 판매 중 >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